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여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두고 끝내 이견 못 좁혀 예정대로 27일 시행...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계에서는 오는 27

일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의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해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딱 하나 주면 또다른 떡을 내어놓으려는 것인데 이쯤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유예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은 2020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한 것인데 갑자기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본회의의 시작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27일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후에 계도기간을 뒤 곧바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고용부는 법 개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근로시간 감독 등 다른 사건과는 달라서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들이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



롯데하이마트 효천점은 31일 오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행사·이사·기전 구매고객을 위한 그랜드오픈 특가세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랜드리뉴얼 오픈행사

롯데하이마트 효천점, 2월 2~19일 혼수·이사기전 특가 SALE

롯데하이마트 효천점(점장 오진태)이 새단장을 마치고 31일 오픈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혼수/이사/기전 구매고객을 위한 그랜드 오픈 특가 세일을 2월 2~19일, 3주간 진행한다.

행사기간 삼성, LG 등 유명 브랜드의 인기기전 세트를 역대급 혜택가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입주세대는 삼성 프리미엄 시스템에어컨을 공동구매보다 좋은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 LG 등 각 패키지는 최대 45%할인 혜택가로 30세트씩 준비되어있다. 또한, 입주/혼수 기전 구매시 최선호 제품인 로봇청소기 도 혜택이 손에 쥌 수 있다.

더불어, 삼성 갤럭시24 신상폰과 아이폰 15등의 휴대폰과 인터넷(에스케이티, KT, LGU+)도 가입이 가능하고, 신화가 수요가 높은 삼성 갤럭시북 와 LG 그램PRO 노트북도 오픈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전주 최초인 롯데하이마트 홈 만능해결 서비스도 런칭한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홈 만능해결 서비스는 가전과 관련된 고민은 물론 홈클리닝, 세탁기/에어컨 클리닝, 입주청소, 한샘 프리미엄 이사, 방장고 및 식기세척기 수납장, TV/도어락 설치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김옥기 기자

농식품유통공사 온라인 도매시장, 11번가도 거래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t@kafn.co.kr)에서 온라인 소포물 11번가의 첫 거래가 시작된다.

11번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사과 배 등 설 명절 수요와 제철을 맞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5개 품목을 구매, 판매자인 통화과정은 산지에서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11번가 물류센터로 직배송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적용되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금지, 중도매인의 직접접하 금지 등이 규정돼 있지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번 거래는 국내 5대 청과법인 중 하나인 통화청과의 경매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자인 11번가에 바로 판매하는 형태다.

이상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 단장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새로운 거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판로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진흥원, 2024년 신년맞이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안전한 근무환경·산업재해 예방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신년맞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에 따른 주요 인프라 안전 관련 현안사항 공유와 시설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발굴·제거·관리를 통해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기관장 주도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의무 이행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미 원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신년맞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고도

화하여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업장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2024년 사업추진 업무보고회 개최... 도정 적극협력 다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가 지난 24일 2024년 사업추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작년도 경영성과를 되돌아보고 2024년 경영목표와 사업추진 방향을 사무소장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해로 삼고 "도민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은행", 더욱 특별한 1등 전북본부 구현을 추진목표로

△미래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경영 △고객중심 신뢰경영을 당부하였다.

이정환 본부장은 "자산성장 둔화, 중국 부동산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대출 건전성 악화 대응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 금융소의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가치를 고객에 두고 업무에 임해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4일 2024년 사업추진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익산시, 올해 주요 지원정책 소개... 기관별 실무자 개별상담 진행

익산시는 25일 ECO융합첨단연구원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익산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익산시를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 △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총 5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함께 했다.

행사를 통해 자금지원부터 판로수출지원, 환경시설개선 지원 등 올해 각 기관별 주요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또 참가 기업들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배부하고, 참여기관별 개별상담 등을 병행하는 등 정보교류의 장이 됐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인과 의미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했다.

익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역 기업 1,000여 개소에 대해 매월 2회 지원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또 기업경영 애로사항이나 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방향 소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사책 가이드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기업정보 통합 메시징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일자리과(063-859-5746)로 문의하거나 팩스(063-859-50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